

# 제3장 중 세

## 제1절 고려 지방관제와 이 고장의 행정체계

고대사회의 모순이 나타나기 시작한 신라 8C 말에서 문벌귀족사회의 체제가 정비되는 고려 성종대의 10C 말까지, 약 200여 년간 민족내부의 문벌과 대립, 이민족의 침입과 압력을 극복하면서, 한국의 고대사회는 중세사회로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보다 더 확대된 지배층 세력의 성장과 그에 따른 지방문화 역량의 증대는 폐쇄적인 중앙귀족중심의 고대문화의 모순을 극복하고 중세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됨으로써 한국사의 발전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귀중한 역사 경험을 토대로 출발한 고려 사회는 고려인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강인한 민족의식과 문화의식을 함양케 하여 거란·여진·몽고·한·왜 등 이민족과의 끊임없는 항쟁을 극복하며 독자적인 중세의 고려문화를 꽃피워 나갔던 것이다.

918년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는 민족을 재통일한 후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네 가지 기본시책(민생안정정책, 복진정책, 민족융합정책, 숭불정책 등)을 내세워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통치체제를 정립해 나갔다.

고려의 지방관제는 건국 초기에는 미처 중앙의 행정력이 지방까지 미칠 수가 없어서 지방행정은 호족들에게 방임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983년(성종 2년)에 12목(牧)을 두어 여기에 중앙의 관원을 파견한 것이 지방관제의 시초였다.

그러다가 차츰 왕권의 확립을 보게 된 995년(성종 14년)에는 전국을 10도로 나누는 동시에 12주(州)의 절도사를 비롯하여 그 아래로 단련사(團練使), 자사(刺史), 방어사(防禦使) 등 외관을 설치하였지만 10도(道)는 이에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현종 9년(1018년)에 완성된 지방제도에 의하면 전국을 일반 행정구역인 5도와 북방의 군사적 특수지역인 양계(兩界)로 나누어, 5도 밑에는 군(郡)과 현(縣)을, 양계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다시 그 이하에는 촌(村)단위로 나누었으며, 신라시대 이래의 향(鄉)·소(所)·부곡(部曲) 등의 천민집단 지역도 하나의 행정단위를 이루어 군·현에 속하게 하였다.

특수행정 단위로서 지방순무(地方巡撫)의 거점인 3경(京)(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지금의 서울)이 있었으며, 군사적인 요지인 4도호부와 도의 중요지역에 설치된 지방행정기관인 8목(牧)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상의 요지에는 진(津)·역(驛)·관(館) 등이 설치되어 중앙정부의 명령전달과 지방의 조세와 공물의 수송에 이용되고 있었다.

이 모든 지방행정단위(군·현·진)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지방에서 직접 백성을 다스리던 사람은 지방관을 장(長)으로 모시던, 그 지방출신의 호장(戶長)이나 향리였다.

이들은 조세와 부역을 징발하는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에 대해서는 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마음대로 세력을 떨쳐 그 횡포가 심하였으며, 본래부터 그 지방에 토착하여 권세를 잡고 있었던 관제로 임기가 정해져 있던 지방관 보다 훨씬 지방의 사정에 밝아 자연히 그 영향이 컸다.

현종 9년(1018년) 이후 이 고장은 경상도의 경주(東京)에 속하였다. 《고려사》〈지리지〉에 의하면 경주(東京)소속의 4군 10현 중 1군(흥해)과 5현(연일·청하·신광·기계·장기)이 오늘날의 영일권(迎日圈)에 속하고 있다. 각 군·현의 연혁과 이를 신라 때의 것과 비교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흥해군** : 본래 신라의 퇴화군(退火郡)으로 경덕왕 16년(757년)에 의창군(義昌郡)으로 고치고, 고려 초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현종 9년(1018년)경주에 내속(來屬)하였다. 명종 2년(1172년)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공민왕 16년(1367년)에 국사(國師) 배천희(裴千熙)의 고향임으로 지군사(知郡事)로 올랐다. 별호(別號)를 곡강(曲江)이라 하고 또는 호를 오산(鰲山)이라 하였다.

**청하현** : 본래 고구려 아혜현(阿兮縣)으로 신라 경덕왕이 해아(海阿)로 이름을 고쳐 유린군(有隣郡)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다시 지금 이름으로 고쳐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연일현** : 본래 신라의 근오지현(斤烏支縣, 오랑우(烏郎友)라고도 함)으로 경덕왕 때 이름을 임정(臨汀)이라 고쳐 의창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다시 지금 이름으로 갈아 현종 9년에 내속하였고, 공양왕 2년(1390년)에 감무를 두어 군을 관장한 만호(萬戶)가 이를 겸임하였다.

**신광현** : 본래 신라의 동잉음현(東仍音縣) (신을, 神乙 이라고도 함)으로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의창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후에 일어진(昵於鎭)이라 하였다가 태조 13년(930년)에 다시 신광진으로 개명(改名)하였고 (《여지도서》에 수록)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경주의 속현이 됨)

**기계현** : 본래 신라의 모해현(毛兮縣) (화계(化鷄)라고도 함)으로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쳐 의창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현종 9년에 내속하였다.

**장기현** : 본래 신라의 지답현(只答縣)으로 경덕왕 때 이름을 기립(髻立)으로 고쳐 의창군의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다시 지금 이름으로 갈아 내속하였고, 뒤에 (공양왕 2년)감무를 두었다.

**죽장면** : 본래 신라 때에는 장진현(長鎭縣)으로 임고현(臨阜縣)이 영현이었으나 고려시대 때 죽장이부곡(竹長伊部曲)으로 개칭되어 경주부에 속하였다.

위의 연혁에 의하면 청하·신광·기계현은 경주의 속현으로서 수령이 없는 현이었다. 당시 고려의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는 주군(主郡)·주현(主縣)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속군·속현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호족 상호 간의 상·하·주속(主屬) 관계가 군현제도의 편성 때에 군·현 상호 간의 주속관계로 전환된 결과인 것 같다.

#### 이 지역의 군·현

신라 경덕왕시 개정 郡·縣名	고려시대 개정 郡·縣名	근세의 명칭	비 고
義昌郡	興海縣	興海	
海阿縣	清河縣	清河	清河로 개정되기 전 德城으로 명명된 때도 있음
臨汀縣	延日(迎日)縣	延日(迎日)	延日(迎日)로 개정되기 전에 烏川으로 불리어진 때도 있음
神光縣	神光縣	神光	신라후기 呢於鎭으로도 불리워짐
杞溪縣	杞溪縣	杞溪	
髻立縣	長髻縣	長髻	장기로 개정되기 전 峯山(蓬山)으로 명명된 때도 있음

#### 참고문헌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

## 제2절 군제와 통신

### 1. 군 제

고려의 군제는 경군(京軍, 중앙군 : 2군 6위)과 주현군(州縣軍, 지방군)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경군은 국왕 직속부대로 수도의 경비와 국경의 방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현군은 호족들이 지배하던 군사를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 흡수하여 이룩된 광군(光軍)과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배치되었던 진수군(鎭守軍)이 합하여 이룩된 것으로 치안과 방수(防戍)를 담당하는 보승(保勝)·정용(精勇)과 공역(工役)을 담당하는 일품군(一品軍)으로 조직되었다.

이밖에 중앙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촌단위의 주현군격의 2품군과 3품군도 있었다. 《고려도경》에 고려의 병력이 60만에 이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2품군과 3품군의 주현군을 포함한 숫자일 것이다. 촌의 2·3품군은 전군(佃軍)으로서 집단적으로 과전(科田)의 경작에 동원되는 전호(佃戶)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생각되며 주현군은 요컨대 농민군이라 할 수 있겠다.

주현군 중 보승과 정용은 경군과 같이 전투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외국군대가 침략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도 하였지만 내란의 진압도 하였다.

국방을 위한 동원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현군은 주력부대이기보다는 후원부대 내지 엄호부대의 성격을 지녔고, 때로는 토성(土城)을 쌓는 것과 같은 노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주현군의 또 하나의 임무는 방수(防戍)의 임무로써 피복과 부임 도중의 식량을 스스로 장만하여 행하는 1년간의 방수는 이들에게 무거운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공역을 담당하는 1품군은 중앙정부에 의하여 과약되며, 그 명(命)을 받아 공역(工役)에 동원된다. 이들은 2번(番)으로 나누어서 가을에 교대하였기 때문에 추역군(秋役軍)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1품군은 무장한 군대이기보다는 노동 부대였으며, 그것도 기술을 지닌 공병(工兵)이 아니라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였다.

고려전기의 군사제도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정지한 것은 무신의 난 이후였다. 국가의 공병(公兵)은 무너지고 무인의 사병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별초(別抄)라는 임시의 특별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외환이 없는 시기에는 그래도 무방하였으나 북방의 몽고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창궐하게 되면 고려는 많은 군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상비군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고려는 위급한 사태를 당하면 그때마다 농민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점차 국민개병, 혹은 병농일치의 원칙에 입각한 군사제도가 짜여 지게 되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군세(軍勢)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려사》〈병지(兵志)〉에 나타난 경상도 주현군수를 참고로 보면 당시(고려전기) 보습 2,627명, 정용 4,811명, 1품 5,702명 등 모두 13,140명이었다. 지방에는 도의 주현군 이외에 2·3품 군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이 고장의 주민들은 고려전기에 지방주현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고려후기에는 둔전병적 상비군(屯田兵的 常備軍)인 쌍성진수군(雙城鎭守軍, 주현군)의 군량과 별초마(別抄馬)를 충당하는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본다.

《고려사》〈병지2〉를 보면 충렬왕 16년(1290년) 9월에 전지(傳旨)하여 동계주군(東界州郡)의 전미(轉米) 1천석과 쌍성 근처의 영덕, 흥해, 덕원, 청하 등 바다에 연(沿)한 각주의 금년 10월부터 명년(明年) 2월까지의 합계가 무려 1,250석이니 쌍성부군의 영덕, 장기, 덕원, 흥해, 청하, 영일, 안강, 기계, 신광 등의 금년에 잡공(雜貢)하는 피곡(皮穀)을 계절(計折)하여 수송하게 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영일 지역은 삼국시대 때부터 북쪽은 고구려와의 접경지역, 동해안은 왜구가 자주 침입하는 요충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고려 말경에는 왜구의 대규모 약탈이 자행되면서 이 고장 주민의 생존은 이 지역의 방위, 곧 국방과 직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왜적에 대한 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신라 때부터 있었던 개포진(介浦鎭, 오늘날 월포지역)을 우왕 13년(1387년)에 통양포(通洋浦, 오늘날의 두호동)로 옮겨 수군만호진영을 설치하게 되었다.

곧이어 만호(萬戶)를 위시하여 정규군과 병선을 파견하여 이 고장과 국가의 방어를 튼튼히 하게 되어 통양포는 국방의 요충지로 이 고장 뿐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행정·군사지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2. 교통과 통신

고려시대 교통·통신의 수단으로는 군사적인 성격을 띤 역마제와 봉수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마제가 실시된 것은 신라 소지왕 9년(487년)에 왕명으로 국내 도로를 개척·수리하여 사방에 설치하였다. 고려 때에는 전국의 도로를 대·중·소로

삼등분하고 각 역에는 역승(驛丞)·역장(驛長)·역정(驛丁)을 두었고 병부(兵部)에 소속되었으며, 역전(驛田)을 주어 경비를 충당케 하였다. 원나라의 지배 때에 원의 역참제도(驛站制度)가 들어와 발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더욱 발달하였다. 이 고장에는 육질(六叱, 신광), 안강, 송라(清河), 인비(仁庇, 기계) 등의 역이 있었다고 한다.

봉수제도는 봉(烽, 햇불)과 수(燧, 연기)로써 변방의 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다. 밤에는 햇불이 잘 보이지만 낮에는 잘 보이지 않으므로 불꽃 대신 연기로써 신호를 보내던 야화주연(夜火晝煙)의 방법이였다. 즉 대략 수십 리의 거리마다 바라보고 살피기에 좋은 요지의 산꼭대기에 봉수를 두어 밤에는 햇불을 들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 전달함으로써, 국방상의 중요한 임무를 발휘하여 빨리 알리고(急報) 경비(警備)와 전신(電信) 역할까지 맡아하던 중요한 시설이며 제도였다.

따라서 봉수는 중앙(고려의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과 해안지방에 침범해 오는 외적의 이동상황이나 그 침략 경위와 내용들을 수도에 신속히 전달하여, 중앙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방어태세를 갖추으로써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호국의 기간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왕의 위세를 과시하며 국민의 신망을 얻음으로써 부국강병을 꾀하던 제도 중의 하나였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이 봉수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 612년(영양왕23년)에 수양제의 조서에도 나타나 있는데, 고구려 군사가 변방을 자주 쳐들어오고 널리 차지하여 봉후(烽候)를 괴롭혔으므로 위급을 알리는 봉수로 몹시 시달렸다고 한다.

BC9년 백제의 시조 온조왕 10년에는 봉현, 봉산, 봉산성 등 봉수와 관련된 봉의 기록이 자주 나와 역시 오래 전부터 봉수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와서 봉수는 더욱 발전되고 정비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123년(인종원년) 6월13일 송나라 사신 노윤적의 제할관으로 개경에 온 서공이 1개월간 머무르면서 고려의 풍물을 보고 들은 사실을 적은 《고려도경》에 송나라 사신들이 배를 타고 고려의 흑산도에 도착할 때마다, 야간에는 항로 주변의 불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불이 차례로 밝혀지면서 왕성(王城)까지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 기록은 비록 체계적으로 확정된 봉화는 아니었겠으나, 고려 전기에 이미 삼국시대보다 더욱 발전된 봉수제도가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 1149년(의종 3년) 8월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曹晉若)이 상주하여 임금의 허가를 얻어 봉수식을 정하였는데, 야화주연으로 하되 봉수 화(炬)의 수를 규정하여 평상시에는 야화(夜火)와 주수(晝燧)를 각기 1회, 보통 위급한 2급(二急)에는 각 2회, 정세가 긴급한 3급에는 각 3회, 정세가 초긴급한 4급에는 각 4회씩 올리게 하였다.

또 이때의 봉수소에는 오장(伍長)과 같은 하급장교인 방정(防丁) 2명과 봉화대에서 직접 햇불을 올리거나 방어하는 근무병, 보조병 등 백정(白丁) 20명을 배치하였다. 그들에

게 각각 높은 곳에 있는 평지인 평전(平田) 1결씩 주어 가까이서 쉽게 오르며 농사짓게 하여 생활대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본 업무인 봉수에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는 각 봉수대에서 정세에 따라 올릴 화수와 봉수를 지킬 요원의 배치, 경제적인 배경의 규정 등 봉수제 전반에 대한 체제가 확립된 것이다.(본 시사 조선시대 봉수조 참조)

### 3. 축성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이념 하에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려 하였다. 태조(太祖, 왕건)는 평양을 중시하여 서경(西京)이라 하고, 이곳을 북방 개척의 기지로 삼았으며, 또한 거란, 여진, 몽고 왜 등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관계로 어느 시대 보다 성(城)을 많이 쌓았다.

태조 2년(920년) 용강현에 성을 쌓기까지 전시대를 통하여 많은 외성(外城), 내성(內城)과 부(府)·목(牧)·군(郡)·현(縣)의 성을 쌓거나 수축하였다.

그리하여 현종(顯宗)2년(1101년)에 이 고장의 청하·흥해·영일·율주(율산)·장기 등지에 성을 쌓게 된 것이다.(《고려사》〈병지(兵志)〉2)

현종 3년(1012년)에 동여진이 청하현, 영일현, 장기현에 침입하니 도부서(都部署)의 문연(文演)·강민담(姜民瞻)·이인택(李仁澤)·조자기(曹子奇)를 보내어 주·군의 군사를 독려하며 이를 쳐서 달아나게 했다(《고려사》〈세가(世家)〉)는 기록이나, “현종9년에 동여진이 청하·연일·장기현을 침략하고……그 후 배를 타고 침략한 것은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동사강목》〈부록하권 지리고〉)라는 기록은 이 고장, 외적의 침입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으로, 이 고장 축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는 대목이다.

왜구의 침입에 대하여는 1350년부터 공양왕 4년(1392년)까지 약 40년간에 걸치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에 왜구의 침탈을 면한 곳은 거의 없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경상·전라·충청도가 가장 심했다. 왜구들의 노략질은 인접 해안지방에만 그치는 소규모(수척, 수십 명)의 것이 아니라 내륙 깊숙한 지역에까지 이르는 대규모(수백 척, 수천 명)약탈행위를 자행하였다.

“왜가 경상도의 길안·안강·기계·영천·신령·장수·의흥·의성·성주 등 각처에 침구 하였다”(《고려사》〈세가〉)우왕 9년)는 기록이나 “왜가 청하현에 침구하였다”(《위의 책》우왕10년)는 기록은 한 예에 불과한 것이다.

공민왕 20년대부터 우왕대에 이르러 왜구의 창궐은 현저하게 나타나 월평균 4~5회 이상 약탈행위가 자행되어 곳곳의 인명과 재산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우왕시 왜구침입 378회로 고려 전체의 80%나 됨)

우왕(1377년)때에 다음과 같은 왜적의 침입과 그 방비책인 축성에 관한 ‘장(狀)’은 당시의 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① 외성을 보수하는 일인즉 나라를 정하고 도읍을 세우는 자는 반드시 먼저 성을 높이 쌓고 못을 깊게 하는 이것이 고금의 통례입니다. 우리 국가는 태조께서 창업하심이 광원(宏遠)하시사 성벽을 수축하지 아니하고 현종조에 이르러 비로소 외성을 쌓고 성위에 라각(羅閣)을 지어 굳게 지켰으나 세월이 오래되고 성이 퇴락(頽落)하였으며 또한 옛 성자리의 주위가 광원(廣遠)하여 12년간 비록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도 능히 중수하지 못할 것 같사오니 마땅히 군사를 조련하고 백성을 쉬게 하여 그 변(變)을 기다리게 하소서.

② 내성을 신축하는 일인즉 오직 여러 가지 일을 함에는 이에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하고,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구가 횡행하여 해독을 함부로 끼치니 경내(京內)의 백성들도 만약 급난을 당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으니 진실로 두렵습니다. 원컨데 내성을 견고하게 쌓도록 하소서

③ 외방의 산성을 수축하는 일인즉 《당감(唐鑑)》에 고려는 산을 인(因)하여 성을 쌓음이 상책이 된다 하였습니다. 산성을 서로 가까운 곳에 편리함을 좇아 수즙(修葺)하고 봉수로 이를 서로 바라보게 하여 공전(攻戰)에 서로 구하게 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고려사》<병지>2)

## 1) 영일읍성

영일읍성은 남성(南城)이라고도 불려오고 있는데, 포항시 남구 대송면 남성1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자연적인 지형은 남쪽으로는 우북동 계곡에서 발원하는 시내가 흘러 동쪽으로 지나가고 북쪽으로 적기 못이 있으며, 동쪽에는 트인 들판과 대각리에서 발원하는 남천(南川)이 흘러간다. 영일만에 흘러드는 형산강의 하구지점에서 이 남천과 만난다. 이러한 지형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곳이었으며 신라시대부터 시작되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에 천혜의 여건을 갖춘 곳이다.

이 성은 해발 80m 남짓한 구름지에서 평지로 찾아드는 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고려 현종 때부터 조선 영조 때 까지 약 740여 년 동안 해안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읍성이 축성하게 된 것을 보면 신라시대는 근오지현이라 하여 고헌성(오천읍 원동)에 그 현기(縣基)가 있었고, 통일신라 35대 경덕왕 16년(757년)에는 의창군 속현으

로 임정현이라 개칭하면서, 현기를 고읍성(古邑城, 대송면 장흥리)으로 옮겼다가 고려 태조 13년(930년)에 영일현이라 개칭하여 현종 2년(1011년)에 그 현기를 이곳으로 이 건하여 경주부의 속현으로 지현사를 두고 우왕 13년(1387년) 통양포진을 설치하여 수 군만호(水軍萬戶)를 두었으며 공양왕 2년(1390년)에 지현사를 감무(監務)로 고치고 관 군만호(官軍萬戶)를 겸하게 하였다.

영일읍성은 고려 현종 2년(1011년)에 현기를 이건설 때 토성을 축성하였다가 여러 해 지남에 따라 성첩이 붕괴되어 방어에 적합치 못하다 하여 공양왕 2년(1390년)에 석축을 하여 성곽 자체를 토성에서 석성으로 고쳤으며, 이는 조선 초 양성지(梁誠之)의 주장(우리나라의 관방은 산천의 순리에 따라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호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은 당시 행성축조의 폐단을 논하여 행성무용론(行城無用論)을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문 지리적 중요지역인 거진(巨鎭)을 중심한 방어책으로 요읍(要邑)관방론을 주장함)에 의하여 하삼도(下三道) 연해읍성(沿海邑城)의 축조가 현실화 되었는데, 영일읍성은 하삼도 연해읍성의 축조 총책임을 맡은 최윤덕의 각관성자조축 조건(各官城子造築條件)을 충족하는 것으로 비교적 앞선 순위로 세종 12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때 부실공사를 막기 위하여 축성 후 5년 이내 무너질 경우 그 관리는 율문(律文)에 따라 장80도(杖八十度)로 다스려 환직(還職)시켜 개축케 하도록 하였다.

영일읍성의 구조를 보면 성곽 내에 100여 호의 민가가 들어서 경작지로 개간됨으로써 많이 훼손되었으나 잔재하는 흔적을 살펴보면 성곽형태가 포곡형(包谷形)이다. 포곡형은 내부의 넓은 계곡을 포용한 산성을 말하며 계곡을 둘러싼 주위의 산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였다.

성벽은 현종 2년(1011년)에는 고읍성에서 이건설하여 토성을 쌓았다고 하는데 고현성 등지에서 나타나는 삭토법(성벽이 될 만큼 적당한 폭을 남겨두고 뚝을 중심해서 안팎을 깊게 깎아내는 방법)으로 축조했음을 남벽과 서벽에서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공양왕 2년(1390)에 감무 겸 관구만호 최자원(崔自源)의 지휘로 토축 위에 형산에서 채석하여 배로 실어 나른 잘 다듬은 돌로 석축을 하면서 북쪽과 남동쪽 성벽은 산성에서 주로 보이는 내탁법(內托法, 바깥쪽만 돌로 쌓고 내측은 토사와 잡석으로 다져넣음)으로, 동쪽과 서쪽, 남서쪽 부근의 성벽은 읍성 등 평지성에서 주로 쓰인 협축법(俠築法, 안팎을 모두 석축으로 하고 그 사이에 잡석을 채우는 것)으로 쌓았다.

영일읍성의 규모에 대한 기록으로 최초의 것은 《동국여지승람》인데, 이에 의하면 공양왕 2년(1390년)에 완성된 영일읍성은 석축으로 성 둘레는 2,940척(尺)이었다. 한편 세종조에 여러 차례 축성되었으나, 그 규모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최근세에 발간된 구 《연일읍지》에 의하면 주위는 2940척, 높이 12척, 성안에 우물 3개가 있다 하

여 공양왕 때의 규모와 비교하면 길이는 같고 높리와 우물의 수를 추가해 놓고 있다. 이 성에도 다른 성과 같이 웅성(甕城), 수구(水口), 장대(蔣臺), 망루(望樓), 여장(女牆), 해자(壕子) 등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으며 현청과 창고, 연무장, 숙소 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주춧돌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성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연일읍성기>(고려 말 학자 이승인이 지음)를 석의(釋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선조(先祖)이래로 ‘백성을’ 휴양(休養)하고 생식(生息)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태평한 그 속에 살고 죽고 한 지 4백년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문(文)으로 제치(制治)할 수 없었고, 무로는 난을 평정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다 섬의 고약한 것들이 감히 연변에 침입하였으니, 경인년(충정왕 2년, 1350년)에 침입한 도적이 바로 그것이다. 짓밟힌 것이 경신·신유년 두 해 동안에 이르도록 병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형편이었다. 아, 치안이 극진하게 되면 사세가 어지러워지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적을 막고 방비하는데 있어 그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영일은 계림의 속현으로,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은 또 통진포(通津浦-通洋浦)의 오기로 보임에 임하고 있으니 실로 해천(海賤)들이 내왕하는 요충이다. 경인년(1350년)에 병들기 시작함으로써 30년이 지났으니, 생산하고 모은 것이 쓸어버린 듯하였다. 기사년(1389년)에 삼도도체제사(三道道體祭使)가 현의 옛 치성(治城)을 지나다가 두루 두루 살펴보고 위연(喟然)히 탄식하며, ‘이것을 어찌 도적에게 주어서 그들의 좋은 일이 되게 할 수야 있겠느냐’ 하고는 축성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으나 얼마 후엔 지반이 좁은 것 같다 하며 구촌(丘村)에 장소를 옮겨 흙으로 쌓기에 힘썼지만 비가 오면 곧 무너졌다. 경오년(1390년) 오월에 익양(益陽) 최후(崔候)가 만부장(萬夫長)으로 여기에 오게 되어 현의 일을 겸하여 맡게 되자, 정령(政令)이 크게 행하여 백성들이 밑에 일하기를 즐겨하였다. 최후가 이에 도 관찰사에게 ‘우리 고을이 힘입어 존재하는 바는 성이겠는데, 성이 이미 무너졌으니 이는 이미 우리 고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집니다’라고 말했다. 관찰사도 최후의 말을 옳게 여기고, 옆 고을에 명령을 내려 천여 인부를 동원하고, 인해서 전 선공령(線工令) 정인생(鄭隣生)을 시켜서 최후와 같이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최후는 생각하기를 ‘공(功)은 오래가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 그러기엔 돌만 같지 못하다’ 하고 이에 선부(船夫)를 보내어 형산(兄山)의 돌을 떠서 날라다가 성을 쌓으니 두길 남짓하고 둘레는 모두 몇 리(里)나 된다. 남북에 2문(門)을 두었는데, 문에는 각각 문루를 세웠으니, 남쪽의 것은 대개 손님과 나그네를 맞이하고 갈고 심는 것을 시찰하는 것이요, 북쪽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간악한 도적을 살피자는 것이었다.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니, 1011년 흙으로 축성한 후 1390년(공양왕 2년) 근 380년 만에 돌로 개축하여 둘레 2940자, 높이 12자 안에 3개의 우물이 있는 튼튼한

읍성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읍성에는 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오고, 새로 오는 자도 연이어서, 성 둘레에는 황폐한 전답이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나라와 고장을 지키기 위한 관리와 백성들의 노력은 축성으로 응결되어 주민들의 생존과 안녕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고장이 해천들이 내왕하는 요충지라는 것을 인식하여 1387년(우왕 13년) 연일현 통양포(포항시 두호동, 두모포(豆毛浦))에 수군만호진영(水軍萬戶鎭營)을 설치하여, 만호를 위시한 정규군과 병선을 파견하여, 이 고장과 나아가서 국가의 방어를 튼튼히 한 것은 뜻깊은 일이었다.

일찍이 신라 때부터 개포(介浦, 오늘날의 월포지역)에 진을 설치하여 외적을 방비하였으나 그곳은 해문(海門)이 광활하여 풍환(風患)이 자주 있는 관계로 통양포로 진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이 고장에 영일읍성과 통양포진이 설치된 것은 뜻 깊은 일이며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해군기지 설치와 중앙관리의 파견이라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 2) 흥해읍성

고려 현종 2년에 동해안 여러 곳에 성을 쌓을 때 오늘날 흥해읍 성내리 자리에 새로운 토성을 쌓았다. 이러한 새 흥해읍성도 근 38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본래의 모습을 잃고 토성의 취약점이 드러나자 다시 그 자리에 돌로서 성첩을 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공양왕 1년, 1389년)

이러한 축성은 말할 것도 없이 왜구를 막기 위함이었다. 고려 말 충정왕 2년(1350년) 왜구의 본격적인 침입이 시작 된 후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흥해읍성이 축성 되게 되었으며 그 축성 과정이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의 권근(權近)의 <흥해읍성기문(興海邑城記文)>에 잘 나타나 있다.

“고개를 넘어 동남쪽으로 가면 바다 위 수백 리에 이르는데, 군(郡)이 있으니 흥해이다. 땅이 제일 끝까지 가다가 막혔는데 물고기와 소금과 땅이 기름져서 이로움이 있다. 그 옛날에 여기 사는 백성들이 이미 편안하더니, 중간에 왜적의 난을 입고 나서 부터 점점 메마르고 황폐해 갔다. 마침내 경신년(우왕 6년, 1380년) 여름에 이르러 더욱 화를 입어 고을이 함락되고 불타서 백성들이 학살과 약탈을 당하여 거의 없어지고, 그 중에 겨우 벗어난 자는 흩어져 사방으로 달아났었다. 마을은 빈터만 남았고 무성한 나무들만 길을 가리니, 이 고을 원이 된 사람도 먼 마을에 가서 살면서 감히 고을 속에 들어오지 못한지 수년씩 되었다.

정묘년(우왕13년, 1387년)에 이르러 국가에서 군 남쪽에 병선을 배치하여 적들이 오는 길을 막은 연후에야(통양포진 설치를 말함) 떠돌던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기 시작

했다. 그러나 현종 2년(1011년)에 축성한 토성이 378년 가까이 이곳 주민들과 함께 풍상을 겪으면서 그 성지(城池)의 견고함을 잃어 갔기 때문에 이를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왕왕이 산골짜기에 굴을 파서 자취를 감춰 지내다가 때때로 나와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다가 왜적이 이르면 도망해 숨을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재(埽宰, 지키는 관료)들이 먼 마을에 살고 감히 오지 못하기는 전과 같았다. 무진년(1388년)겨울에 김제(金堤) 조우랑(趙友랑) 후가 원이 되어 단기(單騎)로 와서 마음을 다하여 다스리더니 이듬해가 되자 정사도 닦아지고 백성들도 화평하게 되었다. 이에 여러 사람들에게 묻기를 ‘우리 고을에는 성이 없어서 백성들이 편안히 살지 못하기로 내 성을 만들어 쌓고자 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꺼리는가, 아닌가’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진실로 우리들이 원하는 바이온데 누가 감히 꺼리겠습니까’ 했다. 이에 이것을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인부를 보내 달라 청했으나 이것만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에 군민의 노유(老幼)겨우 수십 명을 합해서 8월에 역사를 시작하여, 친히 채찍을 잡고 감독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부지런한 자는 위로하고 게으른 자는 경계해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도 않고, 엄하게도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두 즐거이 일을 하였다. 통양만호(通洋萬戶) 백공 인관(白公仁管)이 군사 50명을 보내어 도와서 10월에 이르러서 일을 마쳤다. 이리하여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집을 지으니, 떠돌던 자들이 날로 더욱 모여들었다. 그해 겨울에 벼슬이 갈리자, 백성들이 사랑하고 사모해서 마치 짓먹는 자식이 그 어미를 잃은 것 같았다. 이리하여 그의 정사의 자취로 빛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바, 이것을 조정에 말해서 다시 오기를 청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또 그 일을 기록하여 성루(城樓)에 걸어 두어 생각을 버리려는 마음에 붙이려 했으나 이것도 부탁할 곳이 없다.

경오년(1390년) 봄에 내가 이곳으로 귀양 왔더니 이때 만호 백공이 원이 되어 조후(趙候)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더욱 이루어 못을 파서 밖으로 형세를 험하게 하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 그 안을 견고하게 한 뒤에 그 성이 더욱 완전히 굳어졌다.”

흥해읍성은 석축으로 둘레가 1,493척이고 높이가 13척이며 안에 우물 3곳이 있었고, 남북에 2문(門)을 두게 되었다. 흥해 주민들은 1390년 봄에 이곳에 귀양 온 여말의 학자 권근에게 훌륭한 조후의 덕을 기리는 글을 남겨 달라는 부탁을 하자 권근이 “맹자(孟子)도 지리가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한 명구(名句)를 들어 인화의 큰 뜻을 밝힌 조후의 공덕을 《흥해읍성기문》에 기록하여 후대의 귀감으로 삼게 하였던 것이다. 현재 흥해읍성은 성내동 일부 지역에 큰 돌만 몇 개 남아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옛 성터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 제3절 중세의 문화

### 1. 불교문화

#### 1) 포항의 고려 범종

범종이란 절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나 아침·저녁의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종을 말한다.

경종(鯨鐘)·조종(釣鐘)·당종(撞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에서 집회가 있을 때에 사용된 건치와 중국의 동종(銅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높이 150~200cm, 지름 60~90cm인 것이 많고, 구리에 주로 적은 양의 주석·아연을 섞어서 주조한다. 주조할 때 넣는 금속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고 주종 목적이나 주종자의 정성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

종의 형상은 윗부분에 종루에 달아매기 위한 용뉴(龍鈕)가 있고 아랫부분에 1쌍의 연꽃 모양 당좌(撞座)를 두어, 여기를 당목(撞木)으로 쳐서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였다. 어깨 쪽으로는 음향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돌기를 만들었다.

포항에서는 일찍부터 불교가 융성하여 지금도 유서 깊은 사찰과 그 터가 많이 전해져오고 있다. 따라서 불전사물(佛典四物)이 많이 사용되어 왔을 것이다.

불전사물인 범종(梵鐘)·운판(雲板)·목어(木魚)·홍고(弘鼓)는 모두 부처님에게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불구로서 새벽예불·사시공양(巳時供養)·저녁예불 때 사용한다.

이 중에서 범종은 ‘청정한 불사에서 쓰이는 맑은 소리의 종’이라는 뜻으로 지옥의 중생을 향하여 불음(佛音)을 전파하고, 소리를 내보낸다는 중요한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범종이 많이 전승되었을 것이나, 그 동안 우리 고장에서는 고려시대 범종의 실체가 전해져 오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96년 11월 오어사종이 출토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고장 고려 범종에 대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고장의 고려 범종은 흥해대사종(興海大寺鍾), 영일 출토종(迎日出土鍾), 오어사종(吾魚寺鍾)이 있다.

#### (1) 흥해대사(興海大寺) 종

흥해대사종은 고려 전기의 범종으로 제작연대가 고려 광종 7년(956)이며, 일본에서의 종명은 ‘파상궁 종’이다. 1945년 불탄 것을 1995년 복원하여 현재 오기나와 현립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보(1908년)로 지정하였으나 오끼나와전 중에 소실되고 불타다 남은 용두를 현지 유형 문화재(역사자료)로 지정하였다.

고려 광종 때 제작된 흥해대사종은 황제의 덕을 전하는 종이다. 이 범종의 이름이 흥해대사 때문에 붙여졌다면 이 종은 흥해에 있거나 우리 국내에 있어야 마땅하나 현재 태평양에 있는 ‘오끼나와’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당혹스럽겠지만 사실이다. 흥해대사종이 오끼나와에서 무슨 연유로 한국종으로 보존되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문헌은 없다. 다만 일본에 있는 《신도기(神道記)》에 “바다에서 종이 떠올라 소리가 울리므로 이를 건져 신전에 안치하였다”고 하고 《파상궁 유래기》에서는 “종이 한개 있는데 무명으로 부처를 새기고 지금 이 절에 소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종의 안치와 소장 사실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재질이 청동인 이종은 1467년 오끼나와로 실려가 파상궁에 걸려 조선종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흥해대사종은 그 자신의 내력을 숨긴 채 오랫동안 묻혀 지내다가 중요성을 인정받아 오끼나와 현민의 사랑 속에서 1908년 국보로까지 지정되었다.

이 종은 1945년 ‘오끼나와전(戰)’으로 불타고 음통이 조금 남아 있는 용두만 현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종은 오끼나와 종전 50주년기념으로 1995년 3월 24일 교오토에서 복원되어 현재 오끼나와 현립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그리고 타다 남은 용두(龍頭)를 설명하는 안내판에 “조선에서 종이 전하여졌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흥해대사종에 있는 퇴화군대종표(退火郡大鐘表)라는 명문에는 “무릇 종은 삼신을 모두 일컫는다. 조용할 때는 금산과 같고 울리면 하늘에서 내리치는 벼락이니 아! 크게 깨달을 진저 삼계의 군미(群漢)를 깨닫게 하며 여제자 명호자 정명수강은 위로는 보리정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혼탁으로부터 구하며 받들어 큰 종을 만들어서 부처에 귀의하여 원컨대 지금 황제에게 덕을 입게 하고 다음은 국태민안을 위하여 불법의 망망한 피안의 세계에 오르게 함이라”는 뜻의 주종기문이 있다.

이 명문을 통하여 이 범종이 고려 전기에 해당하는 광종 7년(956)에 주조되었을 알 수 있다. 명문에서 ‘황제의 덕을 입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 고려 광종이 스스로 황제라 칭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을 만들기 전에 주종부서와 책임자를 정하여 놓고 종을 주조하였음도 알 수 있다. 도령좌평, 금교, 지휘도령, 도감전 등의 표현이 그것을 뜻한다.

흥해대사종의 구경은 569mm, 높이는 821mm, 두께는 45mm이다. 걸 고리인 용뉴는 단룡으로 용의 입은 천판을 향하여 종대 상부에 붙어 있는 여의주를 물고 있으며, 용의 발가락은 보이지 않는다. 음통은 3단으로 구분되며 연판으로 장식하고, 상·중·

하 사이를 연주로 구분하였다. 유곽은 4좌로 연주문과 운형문 장식을 하고 3단 3열, 구슬 모양의 유안에는 8과의 연과로 장식하여 연꽃이 결실을 맺은 연과를 표현하였다. 당좌는 4좌로 연주문대 안에 8엽 연판문 장식을 하였으며, 중방 안에도 연주문대 안에 활짝 핀 8과의 연주를 장식하였다.

비천상은 2곳에 있는데 천의를 휘날리며 무릎을 꿇고 기원하며 앉아 있는 모습(좌상)과 천의를 휘날리며 춤추면서 비상하는 모습의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다. ‘퇴화현 대중표’라는 제하의 명문은 유곽과 당좌 사이 좌우 비천상 옆에 전면에 104자, 뒷면에 60자, 모두 164자로 되어 있다.

## (2) 영일 출토종

영일출토종은 국고수입품(1945. 8)으로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소장번호는 제66호이다. 이 영일출토종은 조선종 고려종에 관한 연구 등의 문헌에 소개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종은 포항시 동해면 발산동에서 출토되어 일본인 諸鹿央雄이 소장하였다가 8.15광복 후 경주박물관에 소장·진열되었다고 하며, 그 외의 자세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종은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영일출토종이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기록이 없어 정확한 출토장소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종의 출토지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삼국시대에 건립되었다는 ‘해봉사’가 있어 종의 출토지가 해봉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할 수 있다. 종의 구경은 253mm, 높이는 387mm, 두께는 21mm이다.

이 종은 종신에 비하여 큰 용두, 큰 당좌 및 과대한 보살상 등은 종의 설계 제작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음통, 상대, 하대 및 유곽 등은 우리나라 고려법종 양식에 따르고 있다. 천판 주위에는 복엽의 연판대로 된 견대만 있고 입상대는 없다.

그러므로 견대와 입상대의 장식에 따라 고려종을 분류할 때 이 종은 고려전기 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종의 주성을 검토한 결과 외부주형은 상형과 하형으로 조립되었고, 용뉴와 음통은 밀랍형법, 그리고 견대, 상하대, 유곽, 당좌 및 보살상은 지문판을 사용하여 문양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토종임에도 부식 및 표면변질은 별로 없는 양호한 상태이다.

용뉴는 단룡으로 천판상의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이며, 왼쪽 발은 앞쪽에 오른쪽 발은 뒤쪽에 두고 있다. 발가락은 네 개 중 한 개만 남아있다. 음통은 5단으로 구분되고, 단마다 양련으로 된 복련판이다. 천판은 원호형으로 입상대가 없고 복련판이 연판대로 된 상대가 있다. 상대와 하대에는 연주대문이 있고 주문양은 당초문이다.

연곽(乳廓)은 4좌로 당초문양이며 바깥문양은 연주문, 연곽 내 둥근연꽃봉오리(원형

유두)가 있으며 연꽃봉오리 주위에 열 개의 자방이 있다. 당좌는 연곽과 연곽 사이에 3좌가 배치되었다. 원형 연곽 안에는 12엽 복판 연화문이 장식되어 있다. 중간부에는 중앙에 큰 자방이 있고 하나의 연곽을 중심으로 작은 자방 5좌가 있다.

비천상은 관음보살상으로 두광과 신광을 가지고 있으며 배후에는 화형을 가지고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화좌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종을 영일출토종이라고 하나 출토지를 동해면 발산이라 하였으므로 ‘발산출토종’이라 이름함이 바른 것이다.

### (3) 오어사( )종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자장과 의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처음에는 항사사(恒沙寺)라 불리었다. 원효대사와 혜공선사가 이곳에서 수도할 때 법력으로 개천의 고기를 삼키고 살려내는 시합을 했는데,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나 서로 ‘자기가 살린 고기다’라고 하여 오어사라 하였다고 전한다.



오어사종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있는 ‘오어사’에 있으며 고려 고종 3년(1216)에 주조되었다. 높이는 920mm, 구경은 568mm, 두께는 55mm 이다.

이 범종은 오랜 가뭄으로 ‘오어지’가 바닥을 들어내자 오어지 상류 준설작업 중인 1995년(을해년) 11월 16일(당시 굴삭기기사 ‘이육형’에 의해) 발견되었다. 현재 오어사 출입문 서편 아래 저수지 바닥부분 지하에서 출토되었다.

이 범종에 있는 명문에 의하면 주성 연도가 정우 4년 병자년(고려 고종 3년, 서기 1216년에 해당)으로 700여 년이 훨씬 넘은 오랜 세월이 지난 종이다. 명문에 의하면 이 범종은 오어사를 위하여 주성되었다.

그 후 오어사와 포항시의 노력에 의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끝내고 1998년 6월 29일 국가지정 보물 제1280호로 지정받아 현재 오어사 유물전시관에 보관·관리하고 있다.

오어사종의 표면에는 “동화사 도람 중대사 순성, 같은 절의 중대사 시련과 도인승 영지가 함께 지극 정성으로 발원하여 두루 시주를 받아 삼백 근의 금종 일구를 이루어 오어사에 걸었으니, 성불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리를 따

라가시라. 정우사년 병자오월십구일 대장 순광이 주조하다”라는 명문(주종기문이라고도 함)이 있다.

오어사종은 주종의 기법상 고려후기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종의 전통과 특징을 착실하게 갖춘 종이다. 이 종은 종의 표면처리와 세부 문양이 완벽하게 처리된 최상급의 금속공예품이다. 종의 용뉴, 음통, 상대와 하대, 비천상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종의 의미를 신앙적으로 극대화시킨 작품이다.

진언 “옴마니반메흠”이라는 범어를 종 표면에 양각한 범어곽에 넣은 몇 안 되는 종의 하나이며, 이 종을 주종한 연도가 고려 고종 3년(1216)으로 간지가 분명하고, 주성한 날짜가 정우 4년 병자(5월 19일)가 분명하게 표기되어 정확한 편년을 가지고 있는 종이다.

종 정상에 신라종의 특징인 음통을 등지고 있는 용뉴가 있다. 여기에 장식된 용은 여의주를 두 개 가졌다. 여의주를 입에 물고 또 하나의 여의주는 발바닥으로 받쳐 들고 날개를 힘껏 펼쳐 비상하는 익룡의 모습이다.

음통은 육엽연화문 장식으로, 연꽃이 아래에서 위로 피어나는 모습을 하고, 음통상단은 6개의 구슬을 꽃잎 하나하나에 올려놓은 장식을 하였다. 천판은 원호형이며, 연화형의 입상대를 가지고, 상대는 외주 연주문 내에 보상화문을 장식하였다.

종신(鐘身)의 천판과 상대 윗부분에는 연꽃잎을 세워 돌린 입상화대(立狀華帶)가 있고 그 아래에 보상화문(寶相華文)으로 장식된 띠가 둘러져 있다. 종신하단에도 보상화문(寶相華文)으로 장식한 띠를 돌렸다. 상대 아래쪽에 붙여서 4개소에 당초문(唐草文)으로 장식된 연곽(유곽)이 있고 곱내구(廓內區)에 9개의 연꽃봉오리를 돌아나게 장식하였다.

그리고 종신의 남은 공간에는 전후에 활짝 핀 연화문(連花文)이 양주(陽鑄)된 당좌(撞座)를 배치하였다. 당좌는 3겹의 원호상에 바깥에는 복엽연화문을 내부로 들어가면서 연주문과 연과(蓮果) 문양을 장식하였다.

당좌(撞座) 위에는 연화 지붕으로 장식한 위패형의 진언곽을 만들고 그 안에 범어로 된 6자 진언인 “옴마니 반메흠”을 양주하였다.

비천상은 구름 위 연꽃 방석 위에 꿇어 앉아 두 손을 합장하고 천의를 휘날리며 비상하는 보살상(지장보살)을 양주하였다. 비천상(飛天像)과 당좌 사이에는 각도로 새긴 조성명문(造成銘文)이 있다.

명문해석의 결과 고려 ‘승계’의 면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장인계층의 존재를 주조 책임자의 이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귀중한 범종임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이 종이 오어사의 종이라는 것을 명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 3) 진각국사 배천희(眞覺國師 裴千熙)

호는 설산(雪山) 본관은 흥해로 고려 충렬왕 33년(1307)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탄생하였다. 충숙왕6년(1319) 13세에 화엄반룡사(華嚴盤龍社)에 들어가 일비대사(一非大師)에게서 삭발, 중이 되어 19세(1325년)에 승과에 급제한 후 금생사(金生寺), 덕천사(德泉寺), 부인사(符仁寺), 개태사(開泰寺) 등 10여 절의 주지로 지내다가 원나라에 들어가 강남(江南)의 몽산(蒙山)에게서 의발(衣鉢)을 받고 귀국한 후에 치악(稚嶽)에 은거(隱居)하였고 낙산사(落山寺)로 역유(歷遊)한 후 공민왕 16년(1367년) 치악에 환거(還居)하였다.

왕은 유사(遺使)하여 ‘국사대화엄종사선교도총섭(國師大華嚴宗師禪敎都總攝)’을 후하고 동(同) 19년에는 인장(印章)과 법의(法衣)를 사(賜)하였다.

다음해 국사는 경천사(敬天寺)에 있다가 금강산을 순유(巡遊)하던 중 왕이 유사하여 청환(請還)하였고 진각(眞覺)은 치악으로 돌아갈 것을 간걸(懇乞)하였다. 다음 해 부석사에 들어가 전우(殿宇)를 중영(重營)하게 되었다. 우왕11년 소백산에서 시적(示寂), 향령(享齡) 76, 법랍(法臘) 63이었다.

대사가 국사로 책봉되어 대사의 출생지인 흥해가 군으로 승격되었고 시호는 진각(眞覺), 탑호(塔號)는 대각원조사(大覺圓照師)이며, 대사의 비(碑)는 경기도 화성군 광고산 창성사지에 있던 것을 수원성곽 안의 화흥문 곁에 전각을 세워 보물 제14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이 비석의 비문은 고려말기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지었으며 비석 말미에 “홍무19년 병인정월(洪武十九年丙寅正月)”이라는 문구로 볼 때 홍무 19년은 우왕 12년(1386)에 세운 것으로 보이며 글자의 크기는 2.2cm 뒷면 글자의 크기는 1.5cm의 해서체이다. 전제(篆題)의 글자 크기는 6cm이다.

비석의 형태는 지대 위에 장방형의 대석(臺石)을 놓고 신석(身石) 위에 장방형 개석(蓋石)을 얹은 여말 비석의 한 형식을 보여 준다.

고려 말 불교계의 거성이었던 배천희 국사의 흔적은 흥해읍 양백리 뒷산에 있는 무덤과 평소에 타던 말의 무덤과 유허비를 들 수 있다. 사당은 현재 낡고 허물어질 위기에 있다.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 탑비문의 원문과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 ● 번역문

증시 진각국사비명

고려국 국사 대화엄종사선교

추충보절 동덕찬화공신벽상

흥무 15년 여름 6월 16일에 화엄부석국사께서 창성사에서 입적하시었다.(…마멸…) 상에서 시호를 내려 진각국사라 하시며 탑을 대각원조라 이름하시고 신(臣) 색(穡, 목은 이색)에게 비명(碑銘)을 쓰라 하명하시니 문인 등이 대사의 행장을 자세히 알 길이 없어서 감히 붓을 들지 못한지 오래되었다.

(……마멸……) 이제 비로소 증문(證文)과 구어(具語, 손실 없는 행적)가 도착되니 거기에 기록된 내용에 이르기를 갑진년 가을에 우리 대사께서 휴휴암몽산진당(休休庵蒙山眞堂)에 이르러 밤에(……마멸……) 마음에 매우 이상하게 여겨서 스승을 모시고 방장(方丈)실에 이르니 자물쇠로 굳게 방문이 잠겨있고 세 마디의 전하는 말이 벽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대사께서 말을 따라 읽어 내려갔더니 자물쇠가 홀연히 소리가 나며 저절로 열렸다. 대중들은 모두들 조용히 말이 없었고 방 가운데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마멸……) 장차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대중은 더더욱 감복하였으며 또 그 속에는 옷칠한 작은 또 하나의 상자가 들어 있었는데 사방을 봉하지도 않았고, 그 위에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상자를 열어 보는 자는 반드시 하늘이 벌을 주리라”라고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절강성(浙江省)의 승상(丞相) 장대위(張大尉)가 (……마멸……) “무슨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또 묻기를 “그럼 이제 열어도 됩니까?” 대사께서 말씀하기를 “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과연 편지 두 통이 들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말이 “여러 도적이 삼보(三寶, 불법승)를 파괴하니 이에 일이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쓰여 있었다. 승상이 (……마멸……) 해외에서 왔으니 죽인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내 우리의 법을 삼갈 뿐이라 하고는 몽산의 의복과 물건을 거두어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병오년 봄에 성안사(聖安寺)에서 만봉께 참배하고 3일을 문 밖을 나가지 아니하니 봉(峯)이 이르기를 “고려 노화상 (……마멸……) 들어간 때가 없거니 어찌 나옴이 있겠습니까?” 봉이 이르기를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누가 좋은 눈이 있어서 내병을 보여주겠는가?” 대사께서 주먹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지니 이날 밤 삼경에 만봉이 가사와 신봉을 그에게 주며 이르기를 “(……마멸……)” 오강(吳江)에 도착하니 스님 한분이 머물러 계실 것을 간청하였으나 대사께서는 굳게 사양하였다. 만봉당에 제자들이 그 스승의 옷과 신봉을 뺏으려고 이날 밤 오강까지 추적하여 이르렀으나 승방에 미치

지 못하고 돌아가니 승의 성은 마(馬)씨였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마멸……) 건너간 것이 분명하다.

아! 아! 슬프다. 몽산이 앞에 현몽하시고 만봉이 후에 계(戒)를 주시니 미래에 그에게 미묘한 법을 유촉하실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스승과 제자 간에 전하는 도는 예나 지금이나 멀고 가까움에 관계가 있으니 이는 석씨의 (……마멸……) 현릉(玄陵, 공민왕)께서 노고를 위로하시니 국내 사람들이 다투어 그에게 예를 올리려 하였다.

대사께서 치악산에 은거하시고 동해를 유람하시다가 낙산에서 관음보살의 광명을 내도록 하였다.

정미년 정월 치악산에 돌아오니 군왕께서 사신을 보내어 대사를 맞이한 것이 세 번이나 되었다. 대사는 비로소 5월에 이르러 군사로 봉함을 받으시고 대화엄종사선교도 총섭전불심인대지무애성상원통복(大華嚴宗師禪教都摠攝傳佛心印大智無碍性相圓通福)(……마멸……) 존자가 되었으며 부설 관료를 두고 인장과 법복을 하사하였다.

경술 9월에 현릉께서 왕사 나옹(懶翁)을 청하여 경내에 선교 양종의 모든 승려들 중에 공부가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데 대사께서 증명 법사가 되었었는데 이미 선발이 끝나고 경천(敬天)에 거(居)하시다.

신해년에 금강산을 구경하고 5월에 상께서 사신을 보내어 돌아올 것을 청하였다. 그해 가을에 치악산에 돌아올 것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임자년에 부석사 주지로 있으면서 전우(殿宇)를 중건하여 옛것과 같이 회복시켰다. 대사의 이름은 천희(天熙)요 호는 설산(雪山)이니 흥해사람이다. (……마멸……) 이판서(理判書)부인 최씨이니 최씨가 꿈에 큰배에 많은 승려들이 타고 범패(梵唄)를 하면서 물결을 헤치고 문전에 이르는 꿈을 꾸고 인하여 아이를 가졌고 한달 남짓하여 또 꿈을 꾸는데 흰 학이 그 배를 쫓으니 푸른색 천으로 만든 가사를 입은 승려 하나가 뛰어 나왔다. 대덕(大德)은 정미년 5월21일에 태어나셨고 대사의 나이 13세에 회암반룡사 일비대사에 귀의하여 머리를 깎고 19세에 상품(上品)에 발되고 금생(金生), 덕가(德家), 부인(符仁), 개태(開泰) 등 21여 군데 절의 주지를 지냈으며 그 의복 음식이 (……마멸……) 지조가 있고 매우 고상하였으며 소백산(小伯山)에 있을 적엔 꿈에 몽산을 만나 그 의법(衣法)을 부촉받기도 하였으며 금강오대(金剛五臺)에서도 또한 그러했으니, 이것이 그가 강남으로 갈 뜻을 굳히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일찍이 삼보일경관(三寶一鏡觀) 약간 권을 지어서 세상에 널리 퍼기도 하였다. 대사의 나이는 76이요, 승려생활은 63년이였다. 신이 들으니 보조국사(普照國師)로 스승을 삼고, 대감국사(大鑑國師-탄연)로 친구를 삼고 대혜(大慧)로 상좌를 삼았다고 한다. 그는 늘 꿈속에 그가 나타나 보이곤 하여 지금도 총림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꺼리가 되곤 한다. 이제 원응(圓應)이 스스로 꿈속에서 몽상에게서 의발과 법을 전해 받았으니 석씨의 교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믿을 만도 하여라! 신 색(穡)은 감히 비명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명에 이르기를

대도(大道)는 박이 없거늘 어찌 고금(古今)인들 있으랴. 진실로 그 옛것을 구한다면 오직 이 마음뿐이로다. 마음에 잘못이 없는 것은 꿈에서나 마찬가지로. 두루 두루 넷 물처럼 흘러 다녔고 밝고 빛나기는 저 해와 같도다. 불법의 전함은 인천(人天)보다 더 묘하여 꿈속에서 법을 주고받으니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다. 옛날엔 보조에게 들었고 이제는 권공에게 보았도다. 현릉계서도 그를 숭배하여 대사로 하여금 국사로 삼으셨다. 연세 장차 80에 가까워 가는데 생멸이 무언 지를 보여 주시니 이 비석 천년토록 변하거나 무너짐이 없으라.

홍무(洪武) 19년(1386) 병인 정월에 문인개태사 주지 묘지(妙智) 무애 통조대사 충술(忠述)은 비석을 세움. 비구 혜잠(惠岑) 새김.

#### 4) 원진국사비(圓眞國師碑)와 부도(浮屠)

원진국사비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대웅전 후원 영산전 앞에 있는 것으로 보물 252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이 비석은 원진국사비명이라는 비명의 글자가 가로로 쓰여 있으며, 본문 글자의 크기는 2.1cm로 해서체로 쓰여 있다. 김고인(金考印)이라는 사람이 비문을 새기고, 통의대부추밀원부승선(通議大夫樞密院副承宣)이 글을 지었다. 이 비의 특징은 이수(螭首)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비석 상단 양귀통이가 각이 나지 않고 귀접이한 독특한 형상을 하였으며, 거북의 몸통과 아래 기초 대석(臺石)은 단일석이며 거북의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 비문의 내용에 의하면

원진국사의 속성은 신(申)씨이며 이름은 승형(承迥), 자는 영회(永廻)이며 상락군 산양현(上洛郡山陽縣-지금의 상주군) 사람으로서 고려 제19대 명종(明宗) 원년(1171년)에 탄생하였다고 한다.

가문은 대대로 유학을 전승해 왔으며 그의 아버지는 지금 금성(錦城) 원(군수)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또한 일찍 돌아가시자 세 살에 고아가 되어 그의 숙부 시어사(侍御使) 광한(光漢)씨가 맡아 길렀다고 한다.

원진국사가 일곱 살 때에 그의 숙부는 국사를 운문사(지금의 청도) 연실선사(淵實禪師)에게 위탁하여 글공부를 시키는데 그 말과 행동이 의젓하고 또 총명력이 뛰어나서 한번 듣고 본 것은 다 기억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신동(神童)이라 불렀다.

열세 살 때 희양산(曦陽山) 봉암사(鳳岩寺, 지금의 문경군에 있음)에 나아가 동순선사(洞純禪師)를 스승으로 모시고 머리를 깎고 득도하고 이듬해 금산사(金山寺, 전북

김제균)의 계단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구족계라 함은 비구의 250계를 말함) 스님은 15·6세에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여 교리를 잘 통달한 뒤에 동순선사의 지도를 받아 참선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 봉암사에서 승형스님은 도를 닦았다. 이때는 국가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고 선종이나 교종에서 공부 잘하는 승려를 시험 보여 법계를 주었고, 선종에서는 선사 또는 대선사가 되면 왕사(王師)까지 되었다. 왕사 혹은 국사(國師)가 되면 임금과 온 국민이 떠받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그러나 스님은 그런 것에는 조금도 뜻을 두지 않고 오직 인생의 한 가지 큰일, 곧 부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공부를 철저히 하여 죽음의 큰 인연을 밝히는데 전력하였다.

고려 명종 15년(1158년)이면 승형스님이 나이가 15세 되던 때이다. 그때에 그의 스승 동순선사는 “승형아, 이 절의 개산조 지증국사께서는 입적하신 지는 벌써 360여년 이며 정진국사께서는 200여 년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큰 고승 대덕이 없으니 너는 부지런히 불교의 도를 닦아 선대 조사의 발자취를 이어 우리 종문을 세상에 드날리도록 해야 한다. 나는 아무 한 일없이 70이 가까운 쓸모없는 노물이 되었으니 이제 후회할들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때때로 훈계하고 경책하였다. 승형스님은 본래 총명 영특할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이 지극히 선량하고 순진함으로 스승님의 교훈을 곧 부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부지런히 스님을 받들면서 선(禪)공부에 전력하였다. 때로는 부처님 앞에 천 번, 이천 번 절을 하면서 도를 깨달아 전대조사(前代祖師)의 발자취를 빛내며 국가와 만민의 복밭이 되기를 발원했다. 이렇게 10여 년이 흘러가며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게 되었고 그 도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스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으므로 부모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부모가 낳아 주신 은혜를 한 번도 갚지 못한 것이 가슴에 맺힌 한이 되어 그의 스승 동순선사를 부모 대신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한시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였다.

스님의 나이 27세가 되니 그의 스승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써 병중에 있었다. 그해 봄에 국가에서 승려의 자격시험을 보는 승과를 보이게 되자 선종에서는 그때의 서울인 개경에서 ‘담선법회(談禪法會)’ 곧 선종 승려의 참선공부를 시험 보는 법회가 있었다. 그 스승 동순선사는 자신이 병중에 있으면서 “내가 이 산중에 들어와서 선수양을 한지도 수십 년이 되었구나. 너의 선 공부는 누구보다 뛰어났으니 이번 담선법회에 꼭 참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승형스님은 “소승은 제 마음을 닦아서 인생의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옵고 구태여 선과를 보아서 선사, 대선사의 왕사나 국사나 하는 명리의 길을 밟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사양하였다. 그러나 동순선사는 “네 말이 가혹하다마는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선과를 보아 그 자격을 얻지 못하면 큰절 주지(住持)하나 얻을 수 없으며 선종(禪宗)중으로써 제구실을 할 수 없나니라. 이번 담선법회는 꼭 참여하도록 하여라. 나의 소

원이니라” 하고 간곡히 부탁함으로 “스님의 분부가 지중하시오니 소송의 본의가 아니 오나 그 분부 받잡옵겠나이다” 하고 물러 나와서 7일 동안 걸어서 보제선사에 이르자 아직 법회일자는 며칠 남아 있었다. 그때 봉암사에서 말을 급히 달려 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그 동안에 동순스님께서 열반하셨다는 부음을 전해들은 것이다. 매우 침통하여 슬픔을 억제하면서 “그렇기에 내가 이번에 선과에 참여하기를 꺼렸다. 스님께서 나를 선과 보러 보내시고 가셨구나” 하고 매우 비통해 했다. “어찌, 그렇게 갑작스레 열반하셨단 말이나?” “예, 스님을 서울로 보내시고는 하루 바빠 답선법회를 합격하여 돌아오시기를 고대하시면서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7일이 되자 대중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 인연이 다 하였다.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고 승형이는 이번에 꼭 선과에 합격하고 올 것인데 나와 인연이 다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가게 되니 유감이다. 너희들은 다 승형이를 본받아 공부를 열심히 하여 이 산문을 빛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승형스님에게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들이 의논하기를 큰스님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이신데 어찌 부음을 알리지 않겠느냐고 하여 이 소식을 전하옵니다”라고 하였다. 승형스님은 그 말을 듣고 땅에 쓰러지면서 한동안 실신상태가 되었다가 얼마 뒤에 다시 정신을 차려 일어나 앉으면서 “중으로써 공부를 잘하여 마음을 밝히고 도를 닦으면 그 뿐이지 선과를 보아 합격하는 것이 무엇이 그다지 중요하겠느냐. 스님께서서는 우리 희양산문을 빛내시라고 하시지만 꼭 선과에 합격해야 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곧 본산으로 돌아가려 하자, 그 심부름 온 스님은 “스님은 답선법회를 보아야 합니다. 동순스님이 입증하시면서 그 입적한 소식을 스님께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이번에는 꼭 선과에 합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득이 부음을 아니 드릴 수 없었으나 선과를 보신 뒤에 돌아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서울에 올라온 길이라 그의 숙부 시어사 선한공(先漢公)을 찾아 뵈고 “저는 숙부님의 은덕으로 입산한 뒤로 오직 불도의 도를 닦아 생사대사를 밝히는 것을 근본 과업으로 삼아 왔을 뿐 선과 같은 것을 뜻하지 않았습시다. 스님의 간곡한 분부를 받자옵고 답선법회를 구경왔삽더니 그 사이에 도순 스님께서 입적하셨사옵습니다. 과연 사람의 한 세상이란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과 같고 부귀영달은 한 조각 뜬 구름과 같습니다. 소질(小姪)은 본디 세상살이 밀을 씹는 듯 하운데 이제 동순스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소질은 이 길로 세상의 영리를 버리고 본래 뜻을 이루려 하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 “장하다 네 말이 바로 입산수도 하는 참뜻이며 불도의 진정한 교훈사이다.”

스님은 곧바로 동순스님의 장례를 마치고 수도에 정진하였다.

명종은 평소에 스님의 도행이 남보다 뛰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왔고 이번 선과(禪科)의 명부에도 오른 것을 보았는데 돌연히 그 스승님이 선과를 포기하여 돌아갔다는 말

을 듣고 선교종의 감독기관인 우승록사(右僧錄司)를 불러서 하교하기를 “희양산 봉암사에서 십수 년 선도(禪道)를 닦아 그 도행이 뛰어나고 이번 답선법회에 참여하러 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절로 돌아갔다 하니 그 스님이 이 법회에 참여하면 반드시 상상과(上上科, 장원)에 합격할 줄 믿는 바이니 그 스님을 합격자로 등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부하여 그 답선법회의 합격자 명부에 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그의 덕은 나라에서 공인할 정도였다.

그해 가을에 개경 광명사(廣明寺)에서 선불장(選佛場) 선종의 대과에 합격하여 큰절의 주지가 되는 자격을 얻었으며 이때 나이 30세로서 스님이 늘 마음으로 숭배해온 지눌(보조국사(普照國師)이 계신 조계산 수선사에 계시다가 신종 5년 봄에 지눌국사님을 작별하고 강릉 오대산 월정사를 거쳐 금강산 유점사주지로 계시다가 고종 3년 스님 나이 45세 되던 해 가을에 경주 관내에 있는 청하현 보경사의 주지에 임명되어 허물어진 절의 중창(重創)에 힘썼으며, 고종이 대신을 보내어 왕사로 봉하려 하였으나 다섯 번이나 사양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에는 왕사를 봉하려 하면 모든 대신이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조정의 처사에 잘잘못을 가리어 시비하는 간관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대신을 보내어 세 번 사양한 뒤에 왕이 친히 그 스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스승의 예를 갖춘 뒤에 왕사를 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 불교사에 세 번 사양한 분이 기록상 없다고 하는데 원진국사는 다섯 번이나 왕사의 추대를 받고도 사양하였던 것이다.

고종 8년 신사(1221) 여름에 그 문하학도와 중들을 모아놓고 능엄경을 강설하였다. 최후의 강설이라고 늘 대중들에게 일깨웠다. 하루는 대중을 운집시키고 법상에 올라서 한참동안이나 서서 입정하고 계시다가 주장자로 법상을 세 번치고 대중에게 “여러분은 이 소리를 다 들었는가?” “예! 다 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면서 “여러분은 이 주장자를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응, 그 무엇을 듣고 보았는가?” 한 승려가 대답하기를 “예, 그것은 우리의 안식, 이식, 즉 눈, 귀입니다.” “응, 그 의식은 어디에 있는고?” 그때에 대중은 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대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로다. 그것은 이미 능엄경에서 밝힌바가 아닌가. 즉 부처님은 이 본연의 진성을 그대로 되찾은 분이고 그 진성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형체도 없으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며, 생사고해에 헤매나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하였으며, 또 하루는 스님이 대중을 돌아보면서 “정법을 만나기 어려움이 마치 눈먼 거북이가 나무등걸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나도 세상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은 헛되게 광음을 보내지 말고 힘껏 불법을 선양하여 부처님 은혜를 갚도록 하오” 하고 설법하였다. 7월 그믐에 팔공산 염불암으로 옮겨가서 청림·원정 두

선덕과 조용히 도를 이야기하고 8월 20일에 머리를 깎고 목욕하고 시자를 불러 옷을 갈아입고 법상에 올라 좌정하고 있다가 “이 법은 나고 꺼짐이 없고 가고 옴이 없지만 바닷물이 바람 따라 물결이 일고 꺼지나니 보는 것은 중생의 망견이요, 나고 꺼짐이 없는 도리를 체득한 것이 불도의 뜻이로다. 산상이 오늘에 생멸이 없는 법에서 생멸의 인연을 보이니 여러분은 생멸상으로 보지 말라. 일체 법이 나는 것도 일체법이 꺼짐도 없도다. 이렇게 법성을 볼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이 항상 앞에 드러나니라”라는 계송을 읊고 그 계송을 범패로 부르게 하고 조용히 좌정할 때 한 중이 “스님 임종계(유언)를 하나 남기소서”라고 하자 스님은 그 중을 빤히 바라보며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밖에 무슨 임종계가 따로 있느냐, 나는 평생에 따로 짓지 않았다” 하고 주장자로 세 번 법상을 치고 조용히 입정하였다. 다시 보니 숨을 거두신 후였다. 그러나 안색이 변함없고 온몸이 생시와 같았다.

그해 10월 10일 문하생 50여 명이 남쪽 산부리에 화장하고 명일 영골을 주워 보경사 산록에 탑을 세워 사리를 봉안한 것이 보물 430호인 원진국사 부도이다. 나이는 51세이며 출가한 나이 38이었다. 상감께서 그 부음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시호를 원진이라고 국사의 칭호를 내렸다. 그리고 문신(文臣)이 공로로 하여금 비문을 짓게 하여 원진국사비를 세우도록 하셨다고 한다.

원진국사 부도는 보물 제430호로 보경사 경내에 있다. 높이는 4.5m, 직경 1.4m 화강암으로 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이다. 하대석(下臺石)은 3단, 하측단(下側段)은 무문팔각(無紋八角), 상단은 섬세한 단변복연(單瓣伏蓮) 32엽(葉)을 새긴 복연석(伏蓮石)이고 중대석(中臺石)은 각우각(各隅角)에 우주(隅柱)만 있고, 상대석(上臺石)은 윗면에 받침 있는 양연석문양(仰蓮石紋樣)이 있다. 탑신은 팔각석주와 비슷하데 우주가 있는 면에 문호형(門戶形)이 모각(模刻)되어 있다.

옥개석은 하면우각(下面隅角)으로 뺀 강기선(降起線)이 있으며 전각(轉角)에 귀꽃을 장식하였으며 추녀는 두터운 편이고 상륜부(相輪部)는 팔엽연화(八葉蓮花)의 양화(仰花)위에 구형(球形)의 복발(覆鉢)을 높이고 다시 양화형의 한 돌을 높인 다음 보주(寶柱)를 엮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부도(浮屠, 고승의 사리나 유골을 넣어 두는 둥근 돌탑)이다.

## 5) 보경사 5층 석탑

보경사 경내에 있는 석탑으로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 제20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이 탑은 고려 현종 14년(1023)에 건립된 것으로 일명 금당탑(金堂塔)이라고도 한다.

금당탑기에 의하면 “도인(道人)과 각인(覺人)이 문원과 더불어 탑을 건립하였다”고 하며, 탑층기단(塔層基壇)위에 당주(幢主)가 있고 탑신과 옥개(屋蓋)는 각 1매석(枚石)

으로 만들어졌다. 상연부(上蓮部)에는 복발(覆鉢)과 양화(仰花)가 남아 있다. 탑층 기단은 가로·세로 각 1.5m이고 탑의 높이는 5m이다.

## 6) 보경사의 불상

보경사(寶鏡寺) 적광전(寂光殿)의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는 소조비로자나불상은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짙게 반영하고 있는 복고적인 불교조각품으로써 고려초기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보경사 불상에 대해서는 그 존재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아직 독립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보경사 불상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기록은 1793년 당시의 주지 동봉화상(東峰和尚)이 쓴 ‘내연산보경사사적기(內延山寶鏡寺事蹟記)’로서 창건시 금당에 안치되었던 불상과 고법당(古法堂)의 금불삼존(金佛三尊)에 대해 간략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고종 2년(1215)에 주지로 부임했던 원진국사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에 “일찌기 보경사 아래 동구에 있는 광흥사에 우거하면서 항상 보경사 고법당의 금불삼존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하러 다녔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로 보아 원진국사가 절의 주지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삼존불상이 안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꽤 유명한 불상이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상의 하한 연대도 원진국사가 주지로 부임한 1215년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금불삼존과 창건 당시 조성되었던 불상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적광전에 봉안되어 있는 비로자나 삼존불상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매우 주목된다. 그러한 가능성으로써 첫째, 이 3불상이 모두 같은 금당(현재의 적광전)에 모셔졌던 상(像)이라는 점, 둘째 이 금당이 강희(康熙) 16년(1677) 중창되었을 뿐 파괴 혹은 화재로 인한 손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 셋째 현재 남아있는 비로자나삼존불상이 고식(古式)이 현저한 통일신라기의 도상적 전통을 간직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3점의 불상이 모두 같은 상(像)일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보경사 창건시기를 규명함은 비로자나 삼존불상의 조성연대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삼존불상은 지권인(智拳印)을 짓고 있는 가부좌(跏趺坐)의 비로자나불좌상과 입상(立像)의 양협시보살상(兩脇侍菩薩像)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살의 협시보살(脇侍菩薩)인 문수(文殊)와 보현(普賢)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말기의 비로자나삼존불상의 예로서는 비록 많이 파손되었으나 각기 사자와 코끼리를 탄 법수사(法水寺) 비로자나삼존불상과 동화사 비로암(毘盧庵)의 삼층석탑에서 나온 863년 명(銘)의 금동사리함 상자의 한 면에 새겨진 선각비로자나 삼존불상처럼 지물(持物)이 없이 합장한 보살입상(菩薩立像)이 전할 뿐이다. 고려초기의 상으로 남아 있는 예는 거의 없으나 988~997년 사이에 왕륜사(王輪寺)에 조성되었다는 장육비로자나삼존불상에 대한 문헌기록이나

보경사 상 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로 추측되는 영탑사(靈塔寺) 금동비로자나삼존불상 등이 남아 있어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유행되었을 형식(形式)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비로자나불상으로 삼존이 구비된 실물대 크기의 상으로서는 이 보경사 삼존불상이 거의 유일한 예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현재 이 삼존불상은 1977年 거행된 개금불사(改金佛事)로 금칠이 두텁게 입혀지고 눈·코·입 등도 다시 그려져 본래의 모습은 다소 잃었으나 보존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 2. 유교 문화

### 1) 포은 정몽주의 학문

고려 말 뛰어난 외교수완과 학문을 겸비한 정치가이자 충절과 충효의 상징으로 만인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포은 정몽주 선생은 영일현 오천 사람이다.

고려 후기 유학의 특징은 성리학을 받아들였다는데 있다. 포은은 이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한 학자였다.

포은은 1367년, 나이 서른하나에 성균관의 학관이 되어 성리학을 강설하였다. 이색(牧隱 李穡)을 중심으로 젊은 학자들이 성균관에 모여들어 주자학의 학풍을 일으킬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때 이색은 정몽주가 경전강의에서 성리학 이론을 명석하게 해석하는데 감탄하여, “정몽주는 이치를 논함에 횡(橫)으로나 종(縱)으로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으니, 우리나라 이학(理學)의 시조로 추대할 만하다” 하였다.

곧 그는 ‘우리나라 이학의 시조’로 추대 받을 만큼 성리학적 인식에서 획기적인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 포은은 이름난 효자이기도 하였다. 이때는 상제(喪制)가 문란하여 사대부들조차도 모두 초상 후 100일만 되면 부모상을 벗었으나, 포은은 부모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여묘하여 애례(哀禮)를 갖추었다. 바로 성리학에 기초를 둔 ‘주자가례’를 몸소 실천한 것이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공양왕 원년(1389), 임금이 그 문려에 정표하였다. 영천 임고면 우항리에 있는 효자비는 이때 세워진 것이다. 포은은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이를 시정하려 노력한 개혁가였다.

1388년(무왕 14) 그는 삼사좌사(三司左使)란 직에 있었다. 이때 그는 권세 있고 간사한 신하가 백성의 전토를 강탈하므로 토지제도가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사전을 개혁할 것을 상소하였다. 또한 몽고식 복식을 버리고 관복을 중국식으로 고치게 하는 등 성리학의 이념을 기반으로 재래의 민간신앙이나 풍속, 복제에 이르기 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였다.

## 2) 포은의 고향 영일과 유풍(儒風)

포은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오천읍 문충리(文忠里) 마을이름은 정몽주의 시호 ‘문충(文忠)’에서 따온 것이다. 오천(烏川) 문충리에 본가를 둔 아버지 운관(云灌)이 당시의 결혼풍습에 따라 영천에서 한때 처가살이를 하면서 포은을 출생시켰다고 전해진다. 이어 구정리(당시에는 ‘청림’이었는데 정몽주로 인해 동네 이름이 구정리로 되었다)에 이주하여 살다가 다시 영천으로 옮겨갔다. 이런 사실은 《포은선생문집》의 <관향(貫鄉)> 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앞에 것은 생략)..... 포은은 오천이 고향이므로 호를 따로 ‘오천(烏川)’이라고도 하였다. 지주사(知奏事) 선생 때부터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으며 중간에 영천으로 이주하였다. 포은선생이 자신이 지은 시에서 “영천 들판 논에는 벼가 잘되고, 오천에는 먹을 만한 고기가 있어, 나에게 두 가지가 모두 있건만, 돌아가는 길은 짓지 못하는 구나” 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시구(詩句) 밑에 “영천과 오천 두 고을은 경계가 잇대어 있는데 모두 내 고향이다”라고 선생이 스스로 주석(註釋)을 달아두었다. 이는 곧 포은이 거주했던 집이 오천과 영천 두 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다만 그 유허지(집터)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를 뿐이다.

《포은선생문집》

한편,《포은선생집 속록》권 4의 택재원사(宅齋院祠) 편에 포은이 살았던 옛날 집(故宅)이 세 곳에 있다고 적었는데, 영천고택·개성고택·영일고택이 그것이라고 했다. 영일과 영천은 포은의 고향이기 때문에 고택이 있었고 개성은 성장한 후 주된 활동무대였기 때문에 고택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이치다. 포은의 영일고택은 ‘청림(靑林)’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덕림서원 고왕록기>(德林書院 考往錄記)에 따르면, “우암 송시열이 덕원에서 장기(長鬢)에 이배(移配)되었을 때 영일 고을에서 마중 나온 지방 유림과 관리들에게 ‘이곳은 문충공 포은 정선생의 재상지향(梓桑之鄉)이라, 군자지향(君子之鄉)에 가가충효(家家忠孝)’라 하였다.”라고 적혀있다. 즉 영일이 포은의 고향이므로 집집이 충신과 효자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포은의 고향이 영일임을 밝혀주는 문헌 자료로는 《포은선생문집》의 <관향(貫鄉)> 편외에도 포은의 <행장(行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영일현편 인물란과 영천군편 우거(寓居)란, 《해동역사》, 《영일읍지》, 《경북마을지》, 《남성재지(南城齋誌)》 등이 있다. 포은이 고향 오천을 그리워하며 직접 지은 시들도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諸城驛 夜雨(저성역의 밤비)

今夜諸城驛 오늘밤 저성역에서  
 胡爲思舊居 어찌하여 고향옛집 생각 나는지  
 遠遊春盡後 멀리 와서 봄은 가고  
 獨臥雨來初 홀로 누워 우기 맞네  
 永野田宜稻 영천벌 논에는 벼가 잘 되고  
 烏川食有魚 오천(烏川) 내에는 먹을 만한 고기 있어  
 我能兼二者 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건만  
 但未賦歸歎 돌아가는 글은 짓지 못하는 구나

(永州烏川二邑連境皆吾鄉里也영주(영천의 고려시대 명칭)와 오천 두 고을은 경계가 잇대어 있는데 모두 내 고향이다)《포은선생 문집》

● 4월1일에 고밀현(高密縣)에서 꺾꼬리 소리를 들으며

日午來過古縣城 한낮에 고현성(古縣城)을 지나서 오면  
 綠陰深處暑風涼 푸른 그늘 짙은 곳 바람 시원해  
 慙慙拂壁題詩句 은근히 벽을 털고 시구(詩句) 적으니  
 起取流鶯第一聲 꺾꼬리 고운소리 먼저 들리네.

● 일조현(日照縣)에서

海上孤城草樹荒 바닷가 외로운 성에 초목이 황량한데  
 最先迎日上扶桑 부상에서 뜨는 해를 맨 먼저 맞이하네  
 我來東望仍搔首 내가 올 때 동녘 보며 시름하였지  
 波浪遙應接故鄉 저 파도 틀림없이 고향에 닿았으리

이 시는 포은선생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 산둥성에서 지은 시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즉 타국에 가서도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고향인 동쪽을 향해 머리를 굽적이며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의 둘째 연에 ‘해를 맞이 한다’는 ‘迎日’은 단순히 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 후반부로 가면서 포은선생의 고향인 ‘迎日’과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고향의 이미지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포은의 고향을 방문한 선비들이 그 감회를 시로 지은 것들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점필재 김종직, 모재 김안국, 지족암 오겸의 시가《교남지》와 《영일현읍지》등에 전한다.

○ **점필재 김종직(佔畢齋 金宗直 1431~1492)의 시**

## ● 詠文忠公靑林舊基 (문충공의 청림 옛터에서)

赴北曾經孤竹國 지난날 북에 있는 고죽국(孤竹國)을 가왔고  
 南來今見鄭公鄉 지금은 남에 있는 정공 고향 이르렀다.  
 此身南北還多幸 이 몸은 남북으로 어딜 가나 다행해  
 景仰千秋拜耿光 천고에 길이 빛날 충혼을 배알 했네.

○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 1478~1543)의 시**

蕭條迎日海之傍 호젓하고 쓸쓸한 영일 바닷가 들러니  
 聞說文忠公故鄉 문충공의 고향 있다네.  
 節義文章傳不朽 절의와 문장이 길이길이 전하리니  
 千秋此地亦輝光 천추에 높이 빛날 이곳이라네.

○ **지족암 오겸(知足庵 吳謙 1496~1582)의 시**

## ● 詠文忠公靑林舊基 (문충공의 청림 옛터에서)

吾東道學此淵源 우리나라 유학은 여기가 근원인데,  
 節義文章不足論 절의와 문장이야 말할 것 없소.  
 舊宅荒涼無處問 사시던 집 허물어져 물을 곳 없어  
 晚風斜日可銷魂 늦바람 저문 날에 혼백조차 시들라.

○ **송월재(松月齋) 이시선(李時善 1625~1715)의 시**

## ● 延日圃隱村 (연일 포은촌)

大賢遠出南溟邑 대현(大賢)이 먼 남쪽 바닷가 촌락에서 태어났으니  
 千載英名蓋八垓 천년토록 훌륭한 이름 온 누리를 덮었네.  
 舊址空餘人指點 옛 터는 사람 없는 빈 곳이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고,  
 黃雲落日獨徘徊 해 저문 저녁놀 아래 혼자 배회하노라.

포은의 자취들은 오천읍 구정리 포은 집터에 세워진 유허비, 문충리에 있는 포은 사당(祠堂)의 흔적과 승마석(乘馬石), 흥해 민속박물관에 보관중인 포은의 상여, 그리고 포은을 배향하는 오천서원 등에 남아 있어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다.

최근에는 충절의 고장을 표방하는 포항지역의 사상적 뿌리가 곧 포은의 사상에서 나왔음을 인식한 지역민들이 역사 바로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은 지역 시의원과 오천 청년회가 중심이 되었고 포항시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이와 때를 맞춰 포항시에서는 포항시립도서관의 명칭을 ‘포은도서관’이라 지었다. 포은의 출생과 사상을 알리는 ‘포항에 뿌리박힌 포은의 자취’를 시비로 발행하여 배부하는가 하면, 포은 정몽주 생가 터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영천과 포항 둘 다 고향이다.’라는 용역보고서를 받았다.

박남희를 중심으로 뜻있는 오천 청장년 30여 명이 ‘포은문화연구회’를 창립하였고 영일정씨 포은공파 종약원의 후원으로 포은도서관에 포은선생의 흉상을 제막하고 기념특강도 했다. 포항시립극단에서는 포항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포은 정몽주’란 제목의 연극을 공연했다.

한편, 배용일 교수를 중심으로 한 포항정신문화발전연구회에서는 ‘포항을 빛낸 인물’ 제2호에 포은 정몽주 선생을 선정하고 이를 보다 정확히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놓고 ‘포은 정몽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포은의 유품과 정신이 그의 고향인 이곳에서 연연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영일읍지》, 1832.  
 김용우, <오어사 범종고>《東大海文化研究》제2집, 1996.  
 김용우, <포항의 고려범종>《東大海文化研究》제5집, 1999.  
 포은학회, 《포은선생집》, 한국문화사, 2007.  
 정은우, <고려초기 보경사 소조비로자나삼존불상의 일고찰>.